

‘깨어있기’가 깨어있게 한다(12부)

| 무연 | 오인회 편집부 인터뷰 |

2013~2014년에 걸쳐 오인회에 참여하였던 무연 님과의 대담을 위주로 오인회에서 진행되는 작업을 소개합니다. 감지에서 감각, '나'라는 느낌에까지 이르러 점차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마음속 현상'으로 보는 과정을 세세히 담았습니다. 관심있게 봐주세요. 이 글을 정리해준 영채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무연 님은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면서, 생각이 어떤 과정으로 일어나는지 궁금했습니다. 우연히 《깨어있기》 책을 만나게 되었고, 책 속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의 상"이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 닿았다 합니다. 그후 깨어있기 프로그램과 오인회 모임에 참가하면서, 내 마음의 상이 내면에서 언어로 나타난 것이 생각이고, 외부의 움직임으로 표출된 것이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각하는 것도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깨어있기'란 단어가 사람을 깨어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편집자주).

(지난 호에 이어서)

무연 사실 지금까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에 대한 신념을 찾기 위해 공부한 면이 있었네요.

월인 그럴 수 있죠.

무연 믿음에 대한 무게, 그것의 메커니즘 이런 걸 모르니까 생각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월인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메커니즘을 보셔야 돼요.

무연 그런데 아까 지구가 네모난 것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그 중에 네모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 같으면 지구에 대한 견해가 어떻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월인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무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모나도 상관없고, 세모나도 상관없고요?

월인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지구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라는 것이 하나의 허상이고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파악한 사람은 ‘나라는 것은 없어.’라고 믿는 사람과 ‘나라는 게 있어.’라고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진실이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개의치 않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나라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 존재라는 것은 항상 관계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메커니즘을 파악한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이 없어요. 달라질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이 ‘파악한 것’과 ‘믿는 것’의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은 화가 납니다. 왜?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알았다고 믿는 것을 누군가 틀렸다고 할 때 화가 나는 사람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명확하게 파악된 사람은 화가 나지 않아요. 그냥 웃죠. 어린애가 어른한테 “아저씨는 바보야.” 그러니까 화 안 내듯이 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듯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지 않고 믿는 사람만이 흔들립니다.

무연 통찰이나 안다는 것이 확신 내지 믿음 같은 것은 아닐까 우려가 드는데요?

월인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모든 현상적인 앎은 믿음과 같아요. 왜

냐하면 현상적인 얇이라는 것은 다 가정 하에서 생겨난 얇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얇과는 좀 다릅니다. 뭔가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아는 것은 일종의 믿음입니다. 다 그 밑바닥에 미지未知를 가지고 미지를 정의하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 볼펜 10cm짜리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런데 사실 10cm를 안다고 여기지만 모름이죠. 왜냐하면 10cm는 1cm 10개가 모인 것인데 1cm가 뭐냐면 “이만큼을 1cm라고 하자.”라고 정한 것이거든요. 1cm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우리가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정해놓은 것이죠. 그리고는 “이것은 10cm야.”라고 말하면 원인도 이유도 없는 이런 길이를 갖다가 1cm로 정해놓고 이것을 10개 했으니깐 10cm라고 말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10cm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런 길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빛의 속도는 지구를 1초당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구와 빛과의 관계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숫자로 “초당 30만km를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그 30만km는 숫자로 정해놓은 거니까 누가 60만km라고 말하면 틀렸다고 말하지만 30만km라는 것은 1cm를 요만큼 봤을 때 30만km지 1cm를 더 조그맣게 했을 때 60만km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30만km도 아니고 60만km도 아니고 그냥 지구와 빛과의 관계일 뿐이죠. 모든 현상적인 얇이라는 것은 관계고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일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식 자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이 공부는 그런 현상적인 얇과는 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외 다른 모든 얇은 믿음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신념信念 속에는 의심



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신념(信念)은 무계감이 실려있는 어떤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무계감이 실린 그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존재와 비존재 자체를 넘어서 있다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그 어떤 생각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자아라는 것을 非有 즉, 있는 것이 아니요, 그렇다고 非無 없는 것도 아니요, 또 非有無 있고 없음마저 아니라고 말하고, 또 非非有 非非無 있지 않음도 아니고 없지 않음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그럼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없는 것인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없는 것도 아니냐면 없다라고 말하면 있다가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 자아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 없다가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얘기하자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요. 잡을 수도 없고 의식할 수도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개념으로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겠죠? 있는 것이 아니면 없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非無,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현상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상계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올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현상계의 본질인 근본은 있는 거냐?’라고 말하면 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고, 우리의 의식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있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 모든 현상계가 그 본질

을 기반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본질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고 없음을 넘어서 있으며, 있지 않음도 아니고, 없지 않음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非자를 붙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건 모두 다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한 개념에 묶인다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한 ‘나는 존재한다’에 반대되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런데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하나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묶여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라는 생각에 묶인 거나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묶인 거나 둘 다 생각에 묶여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에 묶이지 말고 개념에 묶이지 말라고 非자를 붙입니다. 非有 非無 非有無 非非有 非非無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요? 생각이 결론을 못 내리겠죠.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없는 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아, 그러면 뭐 어찌라는 거야?’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렇게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잡으려는’ 그 마음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뭔가를 잡아 집착하거나 저항하려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려는 무언가를 다 내려놓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과 저것이 아닌 것마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머물지 않는 마음이에요. 응무소주應無所住가 그것 아닙니까?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 소주所住는 내가 뭔가 알았다 해서 ‘아, 알겠어.’라는 마음에 머무는 거거든요. 거기에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머물면 그 사람은 다시 묶인 거예요. 응무소주應無所住라는 것



‘뭔가 체험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와, 이제 알았어. 체험했어.’ 이렇게
마음먹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물고 안주하면서 그것을 주인
삼습니다. 그럼 다시 자아라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에 머물고 주인 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의 메커니즘 자체를 그냥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에 대해서 힘을 빼는 거죠

은 마음이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주인이 없
는 거예요. 머무는 순간 그놈이 주인이 되거든요. 뭔가 경험이 있고 체
험이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와, 나는 이제 알았어. 체험했어.’ 이렇게
마음먹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물고 안주하면서 그것을 주
인 삼습니다. 그럼 다시 자아라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에 머물고 주인 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의 메커니즘 자체를
그냥 파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에 대해서 힘을 빼는
거죠. 그럼 ‘아, 이렇게 하면 힘이 빠지는구나.’ 그 생각도 일어나겠죠.
그것을 자기는 안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믿음을 느꼈습
니다. ‘아, 나는 어퍼어퍼하다.’는 생각을 떠올리고 그 생각을 믿는 마
음에서 힘을 빼면 ‘아, 힘이 빠지네.’ 하면서 그 생각이 더 이상 나에게
힘을 발휘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나는 안다.’ 이렇게 생각
할 것 아니에요? ‘나는 어떤 생각에 대해서도 힘만 빼면 그 생각이 힘
을 발휘 못한다는 걸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때 그 생각마저도
정말 힘을 빼는 겁니다. 이 작업이라는 것이 정말 발붙일 곳을 없게 만
드는 거예요. 자아라는 것은 참으로 교묘하거든요. 마음이 뭔가 주인
삼으려고 하는 이 특성은 참으로 교묘합니다.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함정에 빠지죠.

신념에 붙어있는 생각을 파악하고 그 생각에서 신信, 즉 믿음의 느낌을 파악하려는 이유는 사실 믿음의 힘을 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힘을 빼려고 하는 것’은 힘들어서 ‘도망가려는 마음’이에요. 도망가려는 마음은 이미 거기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주인을 삼고 있는 마음이지요. 사실 믿음의 느낌을 파악하려는 것은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에 힘이 들어갈 때 ‘아, 마음이 이것을 따라 다니는구나.’라는 마음의 회로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로를 파악하면 저절로 그 회로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깐 ‘회로에 빠지지 않으려고’ 이걸 파악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 실린 힘을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자꾸 하다보면 그런 것도 파악되게 됩니다. ‘믿음의 느낌을 파악하려는 이유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겠죠. 교묘하죠? 이제 그럼 어떻게 해보실 겁니까?

무연 일단은 믿는 마음이라는 것이 제가 정의내리고 있었던 것과 오늘 설명 들은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인식되었거든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보고 그 설명대로 믿음의 무게 차이를 느껴보겠습니다.

월인 느껴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도대체 힘을 발휘하는 생각들은 어째서 저렇게 힘을 발휘하는가? 그냥 살펴보려는 마음일 뿐이에요. 벗어나고자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이미 또 다른 생각에 힘을 실어주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탐구심과 순수한 호기심만이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고 빨리 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연 그동안은 생각으로 뭔가 이 상황을 피해서 다른 편안한 상황으로 도망가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한 것 같거든요.


월인 예. 그러면 이미 그 마음 자체가 다른 것에 무게를 두고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자체의 작용을 보는 힘은 약화되죠.

무연 그것이 또 공부의 일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월인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공부죠. 누구나 마음이 힘들고 뭔가 불편하면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공부를 시작하니까요. 처음 시작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자기 불편한 마음, 죽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시작한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갈수록 본질적인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은 뭔가를 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를 명백하게 살펴보는 마음, 여기에 자꾸 힘이 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태도가 ‘살펴보려는 마음’ 자체도 보게만 들어주죠.

무연 네. 알겠습니다.

월인 그 정도입니까? 다음 시간에 그럼 뭘 해볼 건가요?

무연 생각을 믿는 마음의 무게감 느껴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